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3년 가을 제69권 3호



핍박받는 아프리카의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교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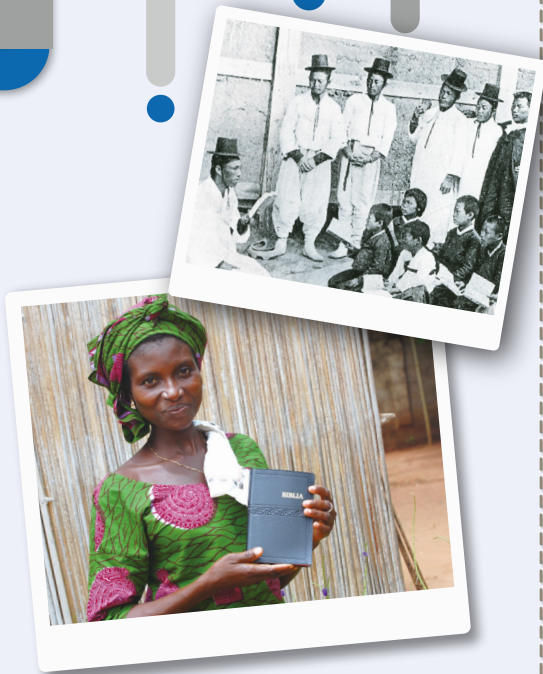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성서한국

2023 가을 제69권 3호

02 포토에세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04 커버스토리

핍박받는 아프리카의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08 2023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2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현장 이야기

과테말라 '성경의 달(Bible Month)'

12 성경을 받은 사람들

내 생애 첫 성경! 감사합니다!
&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는 상처

14 나의 삶을 바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6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말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과 함께라면!

18 니제르를 위한 기도

니제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9 후원 이야기

22 튀르키예 성경 후원 1차 보고

23 대한성서공회 소식

2022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재단사무국/홍보진흥본부(모금·홍보)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성서사업센터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3년 9월 30일
· 인쇄인 인쇄처 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물)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안드리(Andriy)의 가족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리(Andriy)의 가족들은 동부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두 번이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오랜 피난 생활로 인해 당시 2세였던 아들 막심(Maksym)은 실어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폭격을 피해 고향을 떠나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들었던 이들은 우크라이나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쉼터에서 성경을 제공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구해주셨고, 피난을 다니는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집을 잃은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와 지역 교회들의 도움으로 난민들은 지낼 곳과 생필품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공급 받으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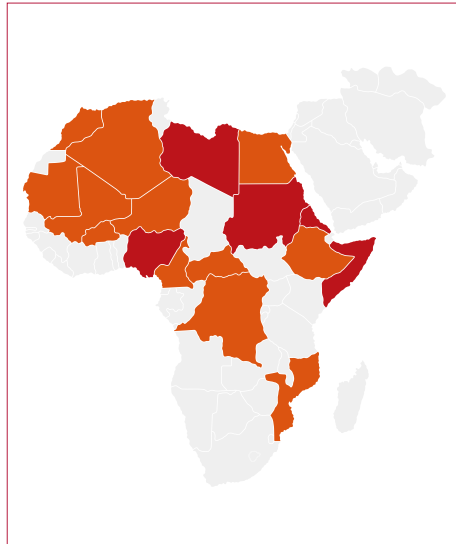
핍박받는 아프리카의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대륙은 가난과 핍박에 시달리며 오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0개국에 모두 아프리카 지역에 있으며, 아프리카 북부에서 시작된 이슬람 세력의 영향이 빠르게 확산되며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지수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발표한 전 세계 '2023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아프리카 국가인 소말리아(2위), 나이지리아(6위), 수단(10위)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슬람 무장 세력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개를 치면서 기독교 박해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내에서 높은 기독교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 5천 건 이상 보고가 되었고,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살해의 89%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납치된 건수는 4천 건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강제 이주를 했거나 난민이 되었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 2023 기독교 박해 지도 (아프리카)

박해수준 | 높음 ● 매우높음 ● 극심함 ●

말씀으로 붙드는 신앙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서부에 위치한 말리는 무슬림이 90%로, 1% 미만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조차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로 고통을 받으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해지는 성경은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말리의 기독교인

“제게 성경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전해 받은 이 성경은 제 삶을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통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도록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 성경을 받은 말리의 기독교인

핍박 가운데 지키는 믿음

아프리카 중서부 기니만에 위치한 카메룬은 국민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지만, 최근 이슬람 세력이 증가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병원, 학교 등 여러 건물들을 세우며 포교 전략을 펼쳐 카메룬의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을 납치한 후 병사로 만들거나 강제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카메룬 최북단 마을에서 성경 사역을 하던 카메룬성서공회 직원 두 명이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에 의해 피살당했습니다. 카메룬성서공회 록 그노와 총무는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카메룬성서공회는 성서 번역 및 보급과 같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사역을 지속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테러의 위협으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보급할 성경의 재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공격이 시작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희망, 관용과 평화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대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 룩 그노와(Luc Gnowa)/
카메룬성서공회 총무



▲ 피살당한 카메룬성서공회 직원의 무덤 앞에 선 룩 그노와 총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는 경제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빈국이며, 문맹률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근 테러 단체들이 부르키나파소의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어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테러에 교회와 성경이 불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납치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위태롭게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 핍박받는 부르키나파소 교회의 성도들

“제 아버지는 교회 장로입니다. 아버지의 섬김을 통해 저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수상한 사람들이 교회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 저희를 공격하려는 테러리스트와 마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

버지는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공포감이 몰아쳤습니다. 이 일로 저희 마을에는 교회도 성당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목표는 교회입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코네일(Corneille)/
부르키나파소 교회 테러 피해자

여러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며 이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고난 중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핍박과 고통,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핍박받는
아프리카 나라들에 성경을 보냅니다.

가나	기니	기니 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수단
세네갈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핍박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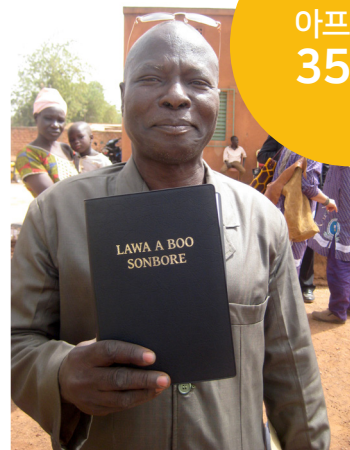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2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굵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3.08.24 기준) *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성서교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역 지원에 사용됩니다.



아메리카
17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35개국

가나, 가봉, 기니,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수단,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 · 태평양
9개국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인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유럽 · 중동
21개국

그리스, 레바논,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과테말라 '성경의 달(Bible Month)'

7월 25일, 과테말라성서공회는 '성경의 달(Bible Month)'을 기념하기 위해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과테말라성서공회 총무인 사울 소사(Saul Sosa)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전하며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소사 총무는 성서공회가 전국의 교회들과 함께 '성경의 달'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성경의 달"은 성서공회가 교회와 협력하고 기독교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달'을 기념함으로써 성서공회가 각 나라에서 무엇을 수행하는지 소개합니다. 우리는 40년 넘게 '성경의 달'을 기념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2023년 '성경의 달' 주제는 "성경을 읽고, 믿고, 살고, 나누기"입니다. 과테말라성서공회는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장려하며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변화시키는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과테말라성서공회는 '성경의 달'을 기념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널리 나누는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시에서 열린 이 행사는 성공을 거두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젤라(Xela)주의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에서도 2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테말라 전역에서 모인 목회자들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과테말라성서공회는 '성경의 달(Bible Month)'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에 불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성경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다가가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국가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과테말라성서공회는 전국에 있는 교회와 협력하여 한 달 동안 50개 이상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본 공회에서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매년 과테말라에 성경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 과테말라성서공회 총무 사울 소사(Saul Sosa)

▲ 과테말라 '성경의 달(Bible Month)'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 성경을 받은 과테말라 사람들의 모습

빅투아르(Victoire)와 케이티(Katy) 이야기

내 생애 첫 성경! 감사합니다

서아프리카 토고에 사는 13살 빅투아르(Victoire)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빅투아르의 어머니는 빅투아르가 세상에 태어났기에 악에 대해 승리했다며 빅투아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빅투아르가 어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의 경제 위기로 인해 빅투아르와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빅투아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구걸하지 않기 위해 늘 적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빅투아르는 한 가지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 친구는 어느 친구들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난으로 성경을 살 수 없었던 빅투아르는 성경을 갖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토고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기뻐요! 이 성경은 너무 소중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제 안에서 자라나게 할 귀한 선물입니다!”

- 빅투아르(Victoire)/토고



▲ 빅투아르와 그녀의 사촌이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는 상처

미망인이자 4명의 자녀를 둔 이스라엘의 케이티(Katy)는 남편을 잃은 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당국의 방역 지침을 성실하게 따랐음에도 케이티의 남편은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케이티는 “저는 하나님과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 저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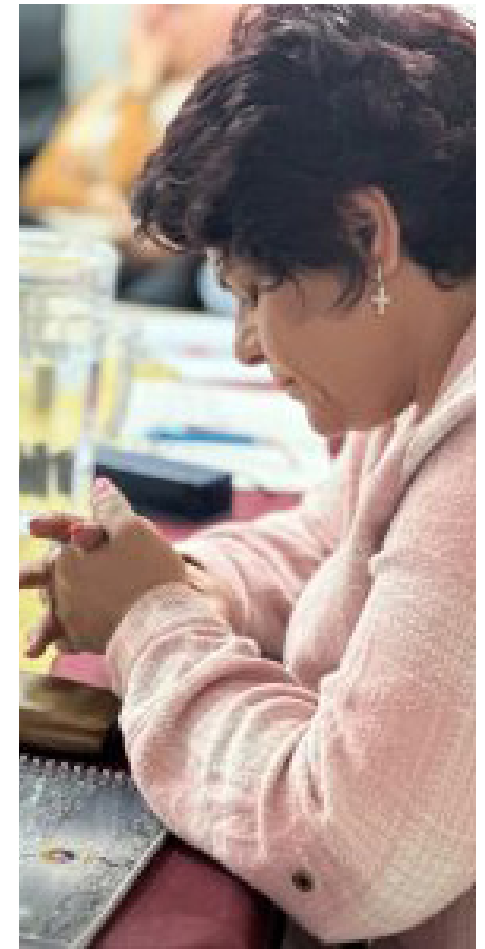
그러던 중 케이티는 이스라엘성서공회에서 진행하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인 ‘막달레나: 여성과 가족의 역량 강화’는 2009년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매년 4,000명의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서 케이티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케이티는 자신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십자가에 가져가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케이티는 분노, 외로움, 슬픔의 감정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케이티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며 더 큰 힘과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

“저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빛과 소금이 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 케이티(Katy)/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 케이티(katy)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르완다(Rwanda)

위치 | 동아프리카 내륙

인구 | 약 1,409만 명

(후투족 84%, 투치족 15%, 트와족 1%)

종교 | 개신교(49.5%), 가톨릭(43.7%), 이슬람(2%), 무교(2.5%)

언어 | 킴바르완다어, 영어, 프랑스어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대학살은 르완다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투치족과 후투족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발생한 대학살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르완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였고, 대학살로 인해 수천 명의 고아와 난민이 생겼습니다. 생존자들의 마음 속에는 많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르완다성서공회는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살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르완다 사람들은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상처받은 자들을 보듬는 자로 훈련받습니다.

무기샤(Mugisha) 목사는 르완다의 한 지역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학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무기샤(Mugisha) 목사는 르완다성서공회의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르완다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했습니다. 저는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변화의 열쇠인 모든 목회자들이 먼저 치유 받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 무기샤(Mugisha) 목사/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진행자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었지만, 점차 말씀을 통해 서로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안고 지난 30여 년을 지내온 르완다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르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제 마음의 상처는 점점 치유되었습니다.”

- 앨리스(Alice)/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 성경 기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



말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과 함께라면!

박동희(높은뜻푸른교회 청년부)

같은 교회 동역자를 통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으며 제가 받은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그 중 느낀 점과 기대하는 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기 편한 문장의 호흡을 고려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들로 쓰인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으며 느낀 것은, 초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더 명확하고 친근감 있게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20대 중반에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고 새신자였던 저는 말씀의 어투나 몇몇 단어들이 다소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초신자 때 겪었던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어 초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전달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새신자뿐만 아니라 기신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받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로 시작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 구절들을 찾아보았고 복음서와 서신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존 역본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거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 히브리서 12:2에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바라보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는 ‘눈길을 고정하십시오’라고 써 있었습니다. 해당 구절을 찾아 읽으면서, 저는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

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히브리서 12:2)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히브리서 12:2)

사복음서의 대화체 부분과 서신서를 읽을 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으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으나, 그 어색함은 잠시일 뿐, 복음서의 예수님과 등장인물 간의 대화체를 보면서 가독성이 높아졌고, 몇몇 본문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려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어조와 단어로 쓰인 서신서를 아침마다 읽고 묵상할 때, 서신서 저자의 말투와 의도가 잘 드러나며 독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명확하고 의미 전달이 잘 된다고 느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읽으며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일은 필수적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더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발간으로 다시 희망을 봅니다. 먼저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며 다시 말씀을 더 읽고 싶어졌고, 더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발간은 마치 선물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기존 역본들과 상호 보완하여, 다음 세대들과 초신자들을 말씀으로 더 가까이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한층 더 친근해지며,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에 가까이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널리 전파될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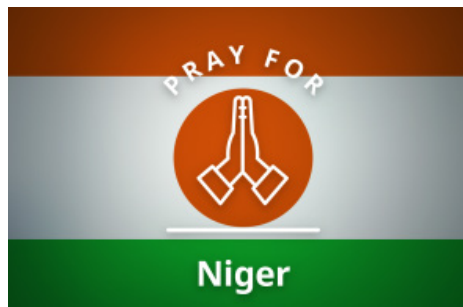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서신서 묵상

니제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난 7월 26일,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쿠데타(군사정변)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대를 이끄는 경호실장 압두라하마네 치아니(Abdourahamane Tchiani)가 주도하여 발생했으며 이후 민주 정부가 무너지고 군부가 들어서며 전례없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아프리카 니제르의 서부 지역에서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최소 17명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니제르군은 반격 과정에서 무장단체 대원 100명 이상을 사살했습니다.

10년 넘게 분쟁 상태에 놓인 니제르는 북부의 반군, 동부의 보코하람(이슬람 무장단체), 서부의 다른 이슬람 테러 조직, 중앙의 무장 갱단 등 여러 전선에서 테러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말까지 이미 군인 500명과 민간인 700명을 포함하여 1,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 니제르를 위한 기도 요청

니제르성서공회는 이러한 역경 가운데 놓여있는 니제르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속되는 이 불안정한 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니제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1. 쿠데타(군사정변)로 인해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 니제르와 *사헬 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위기 가운데 니제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사헬 지역 : 아프리카와 사하라사막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지역



▲ 니제르 군인들의 모습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서울광업교회 성도들

성경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서울광업교회 - 가봉-볼어 성경 6,175부, 카메룬-볼어 성경 7,452부, 세이셸-영어 성경 1,720부, 슬로베니아-슬로베니아어 성경 2,300부, 수리남-네덜란드어 성경, 영어 성경 4,026부 기증



금년 6월 9일, 서울광업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해외 5개국에 성경 21,673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광업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 최규환 목사는 “우리는 성경을 반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반포 사역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수리남성서공회 에르니 반 악셀(Erny Van Axel) 총무를 비롯하여 후원받는 성서공회들

은 영상 인사를 통해 스스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서울광업교회에 감사와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가봉, 카메룬, 세이셸, 슬로베니아, 수리남은 빈곤과 종교적 박해, 세속화 등 처해 있는 어려움은 다르지만 성경을 통해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기를 기대하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5개 나라에 전달되는 성경은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제작되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서울광업교회의 후원으로 전달된 성경을 통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대전남부교회 성도들

미얀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대전남부교회 - 미얀마 <미얀마어 성경> 3,470부 기증



금년 6월 20일, 대전남부교회(류명렬 목사)의 후원으로 미얀마에 <미얀마어 성경> 3,47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대전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는 “우리가 보내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미얀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책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사랑을 담아서 전할 때,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미얀마성서공회 코이 람 탕(Khoi Lam Thang)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전남부교회가 보내주신 성경이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미얀마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약 135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약 5천 4백만 명의 인구 중 88%가 불교를 믿고 있어 승려와 사찰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합니다. 기독교인은 약 6%로 소수이지만,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미얀마의 기독교는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전해지는 <미얀마어 성경> 3,470부는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이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후원받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세계로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될 튀르키예

세계로교회 - 튀르키예 <튀르키예어 성경> 3,779부 기증



금년 8월 16일, 세계로교회(정은석 목사)의 후원으로 튀르키예에 <튀르키예어 성경> 3,779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세계로교회 정은석 목사는 “튀르키예에 전달되는 이 성경이 우리와 동일한 또 하나의 가이오 장로(‘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 요한3서 1:1)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튀르키예로 보내는 성경 한 권 한 권을 붙드는 튀르키예의 주의 백성들이 가이오와 같은 장로가 될 것을 꿈꾸고 기도하며 그 씨앗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터키성서공회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은 지진 피해 지역을 포함한 튀르키예 전역의 교회에 보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튀르키예는 지난 2월, 대지진으로 여러 지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택과 병원, 교회를 포함한 많은 건물들이 순식간에 내려앉았습니다. 터키성서공회는 현지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피해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깨끗한 물, 음식, 체온을 유지할 거처가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청도 긴급합니다. 또한, 튀르키예는 기독교인이 매우 적은 나라로 믿음을 지키던 기독교인들은 이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들을 보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경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에 전해지는 <튀르키예어 성경> 3,779부는 튀르키예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

튀르키예에 성경을 보내다!



▲ 본 공회에서 발송한 <튀르키예어 성경>을 받은 터키성서교회 사람들



▲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1차로 발송된 <튀르키예어 신약> 15,873부

금년 3월부터 시작된 튀르키예 성경 후원에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후원을 통해 약 2만 3천부 이상의 튀르키예어 신약과 성경을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를 덮친 지진으로 인해 튀르키예 11개 도시가 피해를 입었고, 일부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손길이 펼쳐졌으며,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옷, 담요, 음식, 기저귀 등의 구호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터키성서교회 총무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지진 피해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고 싶다는 성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발송한 1차 신약 성경이 튀르키예에 도착하였고, 성경을 받은 터키

성서교회 직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터키성서교회 총무는 “저희의 간절한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전해줄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지진 피해 지역을 포함한 튀르키예 전역의 교회에 보급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상황으로 인해 성경이 보급되는 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사히 성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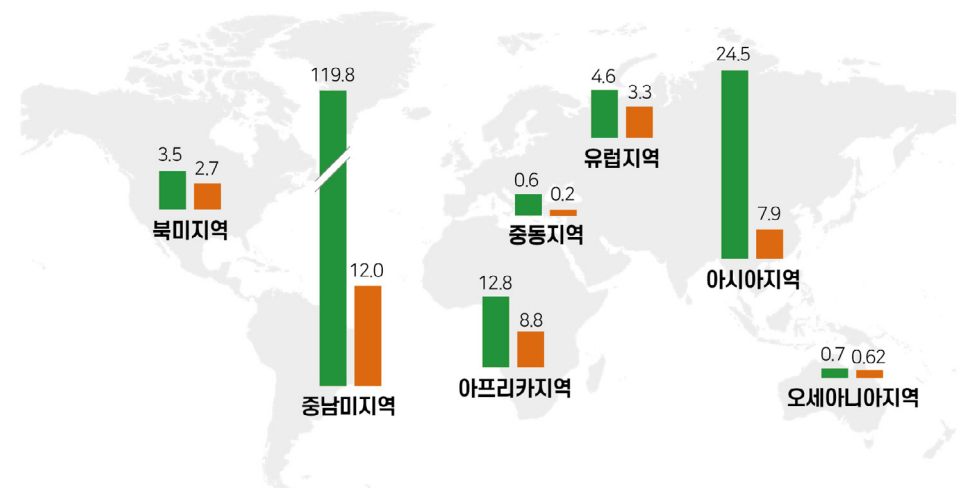
2022 세계 성서 반포 현황

2022년 한 해 동안 1억 6천 6백만 부의 성경이 반포되다

2022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단위 : 백만 부

■ 총 성서 반포 부수 166.4
■ 성경전서 35.5 (인터벳트로로드 28% 포함)



2022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22), 세계성서교회연합회

▲ 2022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세계성서교회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에 총 166,400,000부의 성서가 보급되고, 35,300,000부가 넘는 성경이 반포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써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성서교회들의 비범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세계성서교회연합회 사무총장 더크 게버스(Dirk Gevers)는 “성경 반포는 성경 번역과 마찬가지로 세계성서교회연합회의 핵심에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한 권의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반포에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공급망은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되어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반포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촉진

하며, 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하나로 묶는 나눔, 공휴, 그리고 연합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신약성서 7백만 부가 반포되었는데, 이는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된 것입니다. 한편 성경 다운로드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성서공회들이 제공한 성경 28%는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연대의 힘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성서 반포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성서공회 수입에 직격탄을 받은 것을 견뎌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성서공회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성서공회를 비롯한 여러 성서공회들이 협력하여 만든 연대기금은 팬데믹 이후의 전환기와 그 후 전 세계 경제 활동에 타격을 입힌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둠 속의 빛: 전쟁에 짓밟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성경 지원으로 많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성경 반포는 우

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난민들 가운데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받기 위해 모인 모습

우크라이나에서는 성경전서 109,965부, 신약성서 133,008부, 어린이 성경 99,030부와 단편 성서 261,480부를 포함하여 50만 부가 넘는 성서가 반포되었습니다. 20여 개 이상의 자매 성서공회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25만 부의 성서를 반포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열의는 굳건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 로스티스라브 스타슈크는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로와 치유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교회와 이를 돕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과 힘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체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아프리카에 성경을 전해주세요!

계속되는 가난과 이슬람의 핍박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오랫동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카메룬 최북단 마을에서 성경 사역을 하던 카메룬성서공회 직원 두 명이 보코하람(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당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코하람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카메룬성서공회 대표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언제 다시 보코하람의 공격이 시작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룩 그노와(Luc Gnowa) 카메룬성서공회 총무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이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성경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팩스 : 02-2103-8896 / www.bskorea.or.kr

후원 계좌

수협은행 033-01-085327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대한성서공회)

